

# Chapter4. 확률과 통계

## 01 확률과 의사결정

- 통계의 목적 "표본으로부터 모수(parameter) 추정"  
but, 표본으로부터 모수 추정 시, 오차 발생  
=> 통계량이 모수와 일치할 확률 나타냄으로 해결

### 확률론

#### 수학적 확률

- 통계 자료의 결과를 확률(probability)와 함께 표현
  - 전혀 맞지 않을 확률: 0%, 모두 맞을 확률: 100%
  - 일정한 조건 아래, 동일한 실험 지속적으로 N회 반복 시, 사건 A가 n번 발생할 확률
    - $P(A) = n(A)/N$
  - 확률은 아래 조건 만족
    - 확률은 0~1의 값을 가진다.
    -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다.

$$\sum_{i=1}^n P(E_i) = 1$$

(E: 사건(Event), i: 시행 횟수, P: 확률)

#### 통계적 확률

- 사건 실행 횟수: n, 사건 A가 일어난 횟수: r
  - n을 충분히 크게 한다면, 상대도수로 나타나는 r/n은 일정한 확률값 p로 근사함. (이때, p = 사건 A가 발생할 통계적 확률 or 경험적 확률)
    - n을 무한대로 수렴 시,

$$r \div n = P(A)$$

#### 확률의 덧셈법칙

- $P(A \cup B) = P(A) + P(B) - P(A \cap B)$ 
  - 확률사건
    - 합사건 ( $A \cup B$ ) 곱사건 ( $A \cap B$ ) 배반사건 ( $A \cap B \neq \emptyset$ ) 여사건 ( $A^C$ )

##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법칙

- 조건부 확률
  - 사건 A가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B가 발생하는 확률
    - $P(B|A)$
- 확률의 곱셈법칙
  - $$P(B | A) = P(A \cap B) \div P(A)$$
  - $$P(A \cap B) = P(A) \times P(B | A)$$

## 확률변수와 확률함수

- 확률변수(random variable)
  - : 실험결과(사건)에 실수값을 대응시키고 그 값에 확률을 부여한 것
  - : 결과의 수에 확률이 부여된 것
  - : 확률변수 X로 표현
    - 이산 확률변수(discrete random variable)
      - : 셀 수 있는 특정한 값들로 구성, 일정한 범위로 나타냄
    - 연속 확률변수(continuous random variable)
      - : 연속형, 무한한 경우와 같이 셀 수 없는 경우
- 확률함수
  - : 확률 P를 가진 어떤 사건이 n회 시행 중에서 x회 나타날 때, 확률변수 x와 이에 대응되는 P(x)의 관계를 나타낸 함수
  - : 확률함수를 논하려면, 표본의 개수가 많아야 함. (최소 30개 표본 필요)

---

## 02 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

표본의 특성 파악 시,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여 표본분포의 특성 확인  
확률변수를 통해 확률을 확인하고 확률분포를 구성하면 그 자료에 대한 판단, 예측 내리기 수월해짐

---

### 확률변수의 평균

통계학에서 확률변수의 평균 = 기대값

기대값(expected value) :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해서 전체 사건에 대해 합한 값

$$E(X) = \sum_{i=1}^n x_i P(x_i) = x_1 P(x_1) + x_2 P(x_2) + \dots + x_n P(x_n)$$

## 확률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

- 확률변수의 분산

: 기대값의 특성 나타내는 값

: 기대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

- 평균( $m$ )과 분산( $\text{var}^2$ )

- 평균( $m$ )

$$m = 1 \div n \sum_{i=1}^n x_i = \sum_{i=1}^n x_i P(x_i)$$

- 분산( $\text{var}^2$ )

$$\sigma^2 = 1 \div n \sum_{i=1}^n (x_i - m)^2 \times (x_i \text{의 상대도수}) = \sum_{i=1}^n (x_i - m)^2 \times (x_i \text{의 상대도수}) \div n = \sum_{i=1}^n (x_i - m)^2 P(x_i)$$

- 표준편차( $\text{var}$ )

$$\sigma = \sqrt{V(X)} = \sqrt{\sum (x_i - m)^2 P(x_i)}$$

## 확률변수에서 평균과 분산(표준편차)의 성질

### 확률변수 평균의 성질

$a$ 가 상수,  $X$ 와  $Y$ 가 확률변수일 때 다음이 성립

$$(1) E(a) = a$$

$$(2) E(aX) = aE(X)$$

$$(3) E(aX + -b) = aE(X) + -b$$

$$(4) E(aX + -bY) = aE(X) + -bE(Y)$$

$$(5) E(XY) = E(X)E(Y), X \text{와 } Y \text{는 확률적으로 독립}$$

### 확률변수 분산(표준편차)의 성질

$a$ 가 상수,  $X$ 와  $Y$ 가 확률변수일 때 다음이 성립

$$(1) V(a) = 0$$

$$(2) V(aX) = a^2 \text{var}(X)$$

$$(3) V(X + Y) = V(X) + V(Y) + 2\text{COV}(X, Y) \quad V(X + Y) = V(X) + V(Y), X \text{와 } Y \text{는 확률적으로 독립}$$

$$(4) V(X - Y) = V(X) + V(Y) - 2\text{COV}(X, Y) \quad V(X - Y) = V(X) + V(Y), X \text{와 } Y \text{는 확률적으로 독립}$$

$$(5) \text{sigma}(aX + b) = \text{sigma}(X)$$

$$(6) V(X) = E(x^2) - [E(X)]^2$$

---

## 연습문제

### #1

확률분포: 미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 확률 나열한 것

ex) 12월에 눈이 온 날 수

### #2

평균 =  $(0.04+0.18+0.19+0.21+0.18+0.13+0.07)/7 = 0.174$

분산 =

$$(1/7 - 0.174)^2 * (0.04 + 0.18 + 0.19 + 0.24 + 0.18 + 0.13 + 0.07) = 1.768$$

### #3

평균 =  $(0.89+0.68+0.59+0.42+0.31)/5 = 0.578$

분산

$$= 1/5 * \sum (x_i - \bar{x})^2$$

= 0.040936

: 약 57.8%의 생존율이 평균, 예외 확률이 0.040936%

### #4

평균 =

$$0.11 * 1 + 0.32 * 2 + 0.21 * 3 + 0.15 * 4 + 0.11 * 5 + 0.09 * 6 + 0.01 * 7 = 3.14$$

분산

$$(1 - 3.14)^2 * 0.11 + (2 - 3.14)^2 * 0.32 + \dots + (7 - 3.14)^2 * 0.01$$

= 2.3004

표준편차 = 1.516707

### #5

(a)

$$1 * 0.02 + 2 * 0.05 + 3 * 0.07 + 4 * 0.15 + 5 * 0.22 + 6 * 0.20 + 7 * 0.14 + 8 * 0.08 + 9 * 0.02 = 5.03$$

(b)

$$(1 - 5.03)^2 * 0.02 + (2 - 5.03)^2 * 0.05 + (3 - 5.03)^2 * 0.07 + \dots + (9 - 5.03)^2 * 0.02 = 2.984$$

(c)

$$1 - (0.02 + 0.05 + 0.07 + 0.15 + 0.22 + 0.20 + 0.14 + 0.08 + 0.02) = 0.05$$

### #6

국내 투자 기대값

$$400(0.7 * 0.5) + 200(0.5 * 0.4) + 100(0.2 * 0.3) = 186$$

해외 투자 기대값

$$800(0.7 * 0.6) + 400(0.5 * 0.4) + 200(0.2 * 0.2) = 424$$

국내 투자 분산

$$(100 - 186)^2 * 0.2 * 0.3 + (200 - 186)^2 * 0.5 * 0.4 + (400 - 186)^2 * 0.7 * 0.5 = 16,511.56$$

해외 투자 분산

$$(200 - 186)^2 * 0.2 * 0.2 + (400 - 186)^2 * 0.5 * 0.4 + (800 - 186)^2 * 0.7 * 0.6 = 61,500.16$$

: 기대값은 해외 투자가 더 높지만, 해외투자는 동시에 분산도 높다. 그러나 표준편차로 환산해보면, 국내 투자는 약 128, 해외투자는 약 248이므로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높다. 따라서 해외 투자 선택.